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미술학 석사 학위논문

빛과 그림자를 통해 투영되는 자유에 대한
표현

-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

Expression of Freedom projected through Light and
Shadow

- Focused on my works -

울 산 대 학 교 대 학 원
미 술 학 과
천 유 리

빛과 그림자를 통해 투영되는 자유에 대한
표현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

지도교수 임영재

이 논문을 미술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8년 12월

울산대학교 대학원
미술학과
천유리

천유리의 미술학 석사학위 논문(작품론)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하 원 (인)

심사위원 임 영 재 (인)

심사위원 김 인 자 (인)

울산대학교 대학원

2018년 12월

국문초록

빛과 그림자를 통해 투영되는 자유에 대한 표현

-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

울산대학교 대학원 미술학과 서양화 전공 천유리
지도교수 임영재

‘자유’는 여러 방식으로 표현된다. 본인은 자유를 표현함에 있어 빛과 선을 형상화하여 표현하고자 한다. 본인을 캐릭터화한 인간의 형태와 투영되는 빛에 의해 드러나는 그림자를 통해 자유를 시각화함으로써 본인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다.

현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자유란 매일 같은 일상을 반복하고 있는 답답함 속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캐릭터로 표현된 나의 형상들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자유를 표현하기 위해 모이고 성장하여 하나의 메시지를 만들어낸다.

본인을 캐릭터화한 선들이 모여 하나의 조형물을 형성하였고 그 조형물에 투영된 빛과 그림자를 통해 자유를 시각화함으로써 본인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서술하였다. 또한 본인 작품 중 형태적 측면에서는 키치적인 요소를 드러내어 표현하였다. 더불어 키치적 요소를 표현한 제프 쿤스와 키스 해링의 작품과 본인 작품을 비교 서술하였다.

이렇듯 조형화된 작품들을 통해 소통이라는 개념을 자유에 빗대어 표현하였고 이러한 요소를 연구 대상으로 하여 앞으로 다양한 표현방식과 소재로 연구의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목 차 >

국문초록

I. 서론	1
II. 본론	2
1. 선과 빛의 관계	2
2. 자유의 표현의 조형화	2
3. 대중적 요소	3
III. 결론	5
참고문헌	6
작품목록	7
Abstract	17

I. 서론

현대인들에게 자유란 매일 같은 일상을 반복하고 있는 답답함 속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다. 또 다른 의미의 자유는 무언가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뜻한 바를 추구해 나가는 것일 수도 있다. 이렇듯 자유는 다양한 의미를 포함하고 여러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본인의 작품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한다.

본인은 이러한 자유를 표현함에 있어 선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작은 캐릭터를 모아 붙여 조형물로 입체화하였고, 그 조형물에 빛이 투영되었을 때 드러나는 자유로운 그림자를 통해 자유를 시각화함으로써 본인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표현하고자 한다.

또한 본인 작품의 형태적 측면에 있어서는 대중적 이미지들을 재해석하였고, 키치적인 요소를 담고 있다. 제프 쿤스나 키스 해링 또한 이와 같은 요소로 작품들을 제작 하였다. 이에 그들의 작품과 본인 작품을 비교 서술하였다.

본 논문은 빛과 그림자를 통해 자유를 표현한 본인의 작품에 대해 분석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지속적으로 주제를 표현하는 여러 방식을 찾는 연구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II. 본론

1. 선과 빛의 관계

근대 이후 빛은 대상의 재현적 요소에서 벗어나 추상적인 화면 구성의 순수요소로 표현되었다. 다시 말하면 명암법이나 색채에 의해 형태의 볼륨이나 분위기를 나타내던 빛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의 대상이자 구체적인 조형 소재로 취급되며 빛 자체를 어떻게 조형화 하느냐가 중심과제로 대두된다.¹⁾ 일련의 '선'이 주는 형태에 '빛'을 더하여 이루어진 관계가 '그림자'가 된다.

본인의 작품에서 선이 이루고 있는 형상은 본인의 자아 또는 현대사회 속 사람들의 틀에 박힌 반복적 삶에서 끌어낸 캐릭터이다. 작은 인간 형태의 캐릭터는 키스 해링 작품에서의 인간과 같이 팔이나 다리 모양이 다양하지 않다. 왜냐하면 복잡하게 표현하거나 표정이 드러나는 것은 빛과 그림자를 통한 자유를 표현함에 있어 극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없기 때문이다. 형태는 단순하나 그림자 효과로 다양한 극적인 효과를 내고자 하였다. 그렇기에 본인 작품의 캐릭터는 단순화되고 각이 저 있으며 표정이 없다.

이러한 선으로 만든 조형물에 빛이 투영되며 이루어진 그림자는 본래의 조형물과는 상반되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

2. 자유에 대한 표현의 조형화

본인 작품을 통해 빛에 의해 이미지화한 그림자의 자유에 대한 표현을 설명하고자 한다.

작품에 혀와 입술이 많이 등장한다. 작은 사람 모양의 캐릭터들을 모아 혀와 입술을 구현하였다. 이처럼 작품에 혀와 입술이 많이 등장하는 것은 자유를 대변하는 요소 중 소통이라는 개념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형상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1) 김진수, 홍경희, 「빛을 활용한 조형표현에 관한 고찰」, 한국조형디자인학회, 2010, p.16.

주사위의 형태로 얼굴을 표현한 작품의 경우 실제 얼굴을 평면에 그렸을 때에는 얼굴 속 표정이 한 면만 드러나지만 다면체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주사위는 다양한 표정의 자유를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작품4-Face>

빛을 통한 자유의 표현을 설명하고자 한다. 본인 작품은 하나의 고정된 형태의 입체적 조형물이다. 이에 반해 그 조형물에 비추어지는 빛은 다양한 연출이 가능하다. 조명의 거리, 개수, 밝기, 방향, 강도 등은 고정되어 있지 않기에 자유롭게 조절이 가능한 요소이다. 그렇기에 고정된 형태에 빛을 비추었을 때 생긴 그림자는 늘어지기도 하고 짧아지기도 하며 희미해지기도 하고 선명해지기도 한다. 이러한 그림자는 변화무쌍한 자유에 대한 긍정의 뜻으로 채워진다. <작품 9-Center>

3. 대중적 요소

대중문화를 미술형식으로 끌어들이 작품이 쉽게 이해되기를 바라던 키치(Kitsch) 예술가들은 일상의 대상들을 예술작품으로 변화시켰으며, 어떤 하나의 형태나 매체 또는 위치에 접하는 한정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관계 속에 불확정한 상태로 존재하고 자율적인 미술의 개념을 주장했다.²⁾

또한 미와 예술의 초월성의 품위를 격하시키는 동시에 누구나 쉽게 친숙함을 느낄 수 있게 한다.³⁾

제프 쿤스(Jeff Koons)는 키치적 취향과 팝적 감수성으로 싸구려 도자기인형 등을 제작하여 예술의 권위에 도전하였다.

본인작품에서는 일상에서 흔히 보이는 대중적 요소의 소재들을 재해석하여 자유의 의미를 전달하고자 한다. 입술을 통해 내밀고 있는 혀의 저속한 이미지라든지 변기나 화장지 등 고상한 예술의 이미지와는 상반된 키치적 요소를 가미하여 조악한 대중적 취향의 작품을 제작하였다.

키스 해링(Keith Haring)은 이해하기 쉬운 대중적 이미지를 작품에 끌어 들였다. 가볍고, 저속하며 싸구려적인 이미지를 사회문제와 연결시킨 그의 낙서 작품에서 키치적 요소를 찾아 볼 수 있다. 키스 해링은 자신만의 독특한 상징적 시각언어로 현대 사회의 문제점을 고발하려 하였고 그의 말처럼 대중과 상류계급을 격리시키는

2) 김종구, 「현대미술에 수용된 키치연구」, 중앙대 석사논문, 2002, pp.42-43.

3) 아브라함 몰르, 엄광현 옮김, 『키치란 무엇인가?』, 시각과 언어, 1996, P.290.

미술에서 벗어나 많은 사람에게 직접적인 의사소통을 통한 정보전달을 위해 모호한 그림이 아닌 쉽고 이해하기 쉬운 그림들을 그렸다. 그는 자신의 그림이 단일 조형물 자체로 지각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과 함께 지각된다는 복합적 상호관계를 알았고, 환경 속에 있으며 그것을 바라보는 대중을 중시하였는데 이것은 그래피티 일러스트레이션의 요소와 상통한다.⁴⁾

대중적 요소를 끌어 들인 본인의 작품과 키스 해링의 작품을 비교해보면 유사성으로는 간결한 선을 이용하여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였다는 점이다. 주로 이목구비가 없는 인간의 형상이 선으로 표현되었다. 하지만 키스 해링의 이미지는 평면의 선이며 완성된 하나의 인물은 그 자체로 포괄적인 사회적 문제를 담아내거나, 피라미드 등 다른 사물과 결부시켜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반면에 본인의 작품에서 인간은 선적이기는 하지만 두터운 입체물로 표현되었으며 더욱이 그 인간들은 하나하나 모여 커다란 입체적 조형물로 탄생한다. 뿐만 아니라 입체적 조형물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빛과 그림자를 통해 자유에 대한 의미를 전달함에 의미를 두고 있다.

4) 황요섭, 「키스해링(Keith Haring)의 작품에 나타난 대중성에 관한 연구 : 그래피티 일러스트레이션 (Graffiti Illustration) 요소를 중심으로」, 경희대 석사논문, 2002, p.60.

Ⅲ. 결론

본인의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조형 요소들은 선, 빛과 그림자이다. 첫째, '선'은 본인을 빗대어 불완전한 캐릭터를 만들어내었고 이 캐릭터들은 모여 하나의 조형물이 된다. 둘째, '빛과 그림자'를 통해 조형물을 이룬 수많은 캐릭터들의 공간이 밝게 채워지며 긍정적 요소로 표현되었다. 이러한 조형요소들로 표현한 주제인 캐릭터의 형상 곧 '자유'이다.

본인 작품에서는 키치적인 요소 또한 찾아볼 수 있다. 키치적 요소가 엿보이는 제프 쿤스는 달콤하고 싸구려형식의 예술로, 키스 해링은 자유롭고 거칠 것 없는 일탈로써의 낙서작품을 통해 팝적인 표현과 대중 속 사회문제를 연결시켰다. 이에 대중적 요소가 담긴 본인의 작품과 제프 쿤스나 키스 해링의 작품에서의 유사점과 다른 점을 비교 서술하였다.

본인은 선과 빛을 반영한 작품을 통해 자유의 의미에 대해 고찰하였다. 틀에 박힌 삶에서 벗어났을 때 '자유'라는 개념을 얻게 되듯이 본인 작품에서 선들로 이루어진 입체가 빛과 그림자의 요소를 만나 드러나는 평면의 그림자가 예기치 못한 신선함으로 표현될 때 곧 자유를 의미하는 조형성을 갖게 되었음을 서술하였다.

앞으로 자유를 표현하는 여러 방법들과 기법들을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작품 속에 반영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이종국, 2013, 『조형예술』, 계명대학교출판부.
아브라함 몰르, 1996, 『키치란 무엇인가?』, 시각과 언어.
알렉산드라 콜로사, 2006, 『키스해링』, 서울: 마로니에북스.

2) 학위논문

- 김종구, 2002, 「현대미술에 수용된 키치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진정식, 2001, 「키치미술과 대중문화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황요섭, 2002, 「키스해링(Keith Haring)의 작품에 나타난 대중성에 관한 연구 : 그라피티 일러스트레이션(Graffiti Illustration) 요소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 학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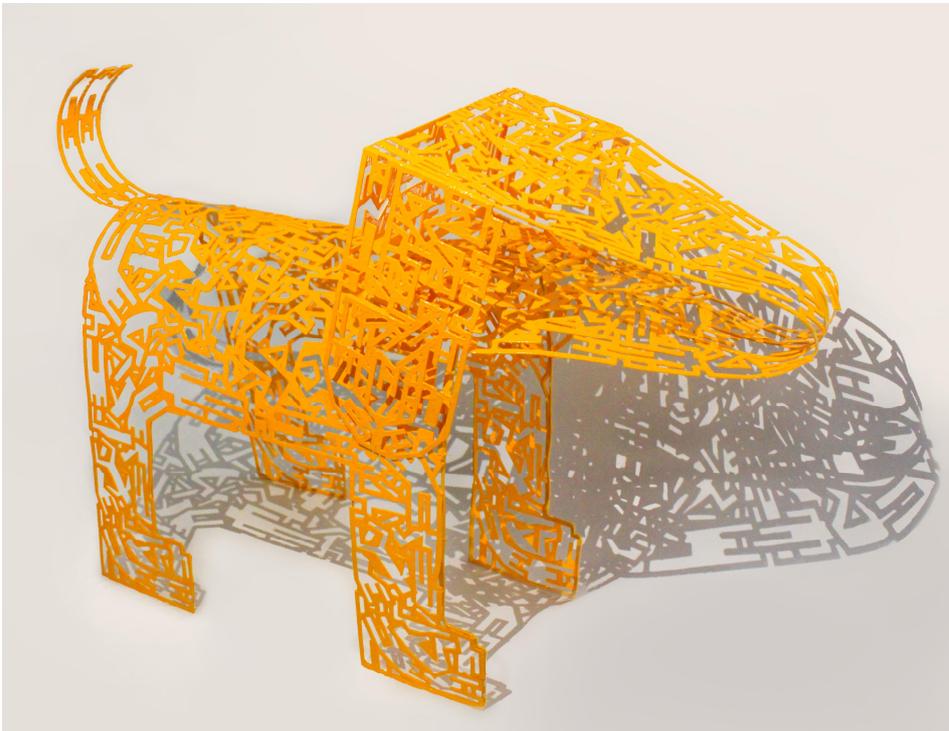
- 김진수, 2010, 「빛을 활용한 조형표현에 관한 고찰」, 『한국조형디자인학회』.

작품 목록

<작품 1> Tongue Tongue, 50x40x35cm, Mixed media, 2018	8
<작품 2> Run2, 65x65x76cm, Mixed media, 2018	8
<작품 3> Tongue Tongue2, 140x124x110cm, Mixed media, 2018	9
<작품 4> Face, 가변설치, Mixed media, 2018	9
<작품 5> Freedom, 13x13x25cm, Mixed media, 2107	10
<작품 6> Freedom2, 30x25x8cm, Mixed media, 2017	10
<작품 7> Link, 30x15x50cm, Mixed media, 2017	11
<작품 8> Liberty, 22x9x17cm, Mixed media, 2017	11
<작품 9> Center, 65x65x76cm, Mixed media, 2018	12
<작품 10> Telepathy, 110x40cm, Mixed media, 2017	12
<작품 11> Run, 가변설치, Mixed media, 2018	13
<작품 12> Telepathy3, 70x40x70cm, Mixed media, 2017	14
<작품 13> Liberty2, 25x9x20cm, Mixed media, 2017	14
<작품 14> Untitled, 가변설치, Mixed media, 2017	15
<작품 15> Untitled2, 가변설치, Mixed media, 2017	15



<작품 1> Tongue Tongue, 50x40x35cm, Mixed media, 2018



<작품 2> Run2, 65x65x76cm, Mixed media, 2018



<작품 3> Tongue Tongue2, 140x124x110cm, Mixed media, 2018



<작품 4> Face, 가변설치, Mixed media, 2018



<작품 5> Freedom, 13x13x25cm, Mixed media, 2107



<작품 6> Freedom2, 30x25x8cm, Mixed media, 2017



<작품 7> Link, 30x15x50cm, Mixed media,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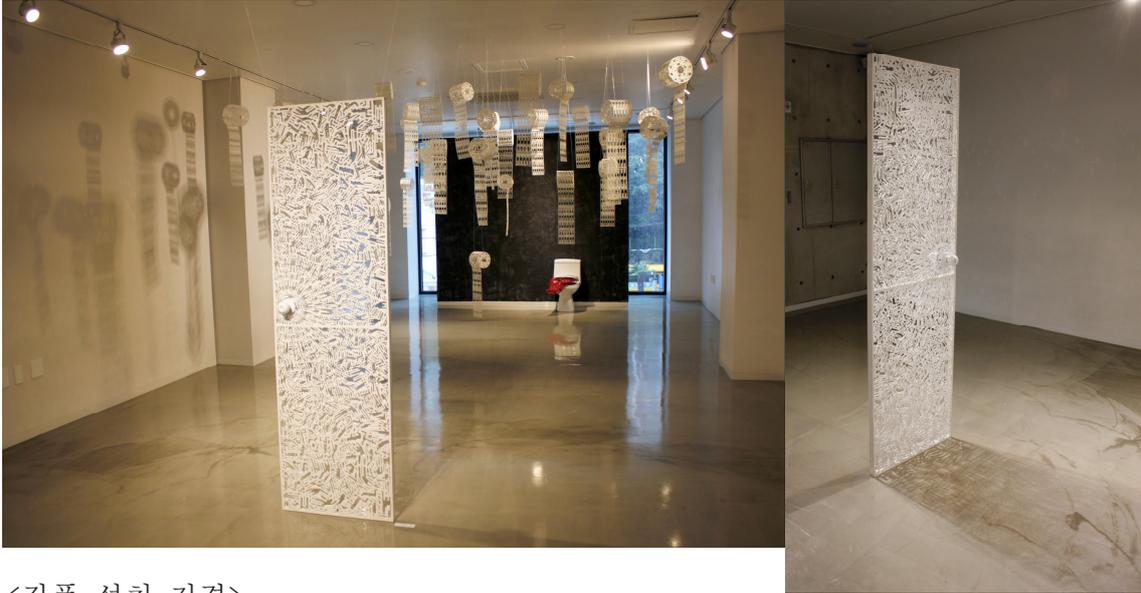
<작품 8> Liberty, 22x9x17cm, Mixed media, 2017



<작품 9> Center, 65x65x76cm, Mixed media, 2018



<작품10> Telepathy, 110x40cm, Mixed media, 2017



<작품 설치 전경>



<작품11> Run, 가변설치, Mixed media, 2018



<작품12> Telepathy3, 70x40x70cm, Mixed media, 2017



<작품13> Liberty2, 25x9x20cm, Mixed media, 2017



<작품 14> Untitled, 가변설치, Mixed media, 2017



<작품 15> Untitled2, 가변설치, Mixed media, 2017



<석사 청구전 전시 전경>

Abstract

Expressions of Freedom Projected through Light and Shadow

- Focusing on my art works -

Chun, Yoori

Major: Painting

Department of Fine Arts

Graduate School, University of Ulsan

Advising Prof.: Yim, Youngjae

'Freedom' may be expressed in multiple ways. In this work I aim to express it by giving three dimensional shape to light and lines, I seek to convey my message. by way of visualizing freedom through human images formulated by characterized shapes and through projected light, I seek to convey my message.

As long as people living in the contemporary world is concerned, freedom is presumed to be something they are eager to escape to in the midst of daily repetitive routines. These people get together in their own way in order to express themselves and grow to create a message.

The linear shapes are put together to form a three-dimensional artwork and freedom is visualized by casting shadows made by light projected onto the artwork. In this way, what I wish to convey is depicted. In addition, in the form aspect of the author's artwork Kitsch elements are used for the purpose of expression. Furthermore the artworks of Jeff Koons and Keith Haring expressing Kitsch factors and Kitsch factor of my works are comparatively described.

As stated above, by way of formative artworks the concept of communication is likened to freedom for the sake of expression. Dealing with these factors as research subjects, I plan to expand my research scope into more diverse expression of styles and subject matters in the years to come.